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터넷 신문 교육 방안에 대한 소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소미*

Shao, Wei. A Study on Designing Methods of Teaching Internet Newspaper for Korean Learners -Focused on Chinese Advanced Learners-. In this paper I aim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Internet newspapers compared to printed newspapers, and ope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se features into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nese speakers.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I would like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values of Internet newspapers. In the second part, I will propose a class model applying Internet newspapers. In the last part, I try to seek the practical methods of teaching Korean languages using articles from newspapers according to the class model introduced in the second part. Compared to printed newspapers, Internet newspapers have three main educational values. Printed newspapers mostly focus on reading, but using Internet newspapers can help integrate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into the classroom environment. For example, through reading and posting comments learners will be able to share their thoughts and communicate with others. Besides, Internet newspapers can also help deepen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and help improve critical reading skills. Search services of Internet newspapers ensure that learners can choose the topics which they are interested in, or information they need. And the hyperlink function can help make a connection between Korean articles and corresponding articles that have been translated into Chinese. By clicking one button on the Korean article page, it can jump to the Chinese version of the article automatically. The translated article can help learners to check if they understand the Korean article accurately. In addition, by finding the mistakes of the translated articles and thinking of proper or better expressions for substitution, learners can benefit from improved translation capacity. Finally, the editing and saving functions of Internet newspapers offer convenience to both professor and learner in maintaining educational material. By applying these features of Internet newspapers we can absolutely achieve more efficient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learning classes.

Keywords: internet newspaper, media literacy, Korean education, critical reading.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해 온 전통적인 의미의 리터러시(literacy)¹를 대체하여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국문과 박사과정

¹ 국제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제기된 리터러시의 정의에 따르면 리터러시는 다양한 문맥과 관련한 인쇄된 자료나 글로 쓰인 자료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조하고, 의사소통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UNESCO Education Sector(2004), The Plurality of Lite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ies

용어가 새로 등장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사용하고 해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의미한다.² 본고에서 다루는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관한 능력을 정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종류로서, 인터넷 신문에 관한 능력을 가리킨다.

발전된 테크놀로지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개념의 리터러시는 매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다양성을 지향함으로써 최근 몇 년간, 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국어 교육 현장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³ 윤여탁 등은 미디어를 통한 국어 교육은 ‘언어적 측면’, ‘문화적 측면’, 그리고 ‘성찰적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의 학습, 그리고 비판적 읽기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⁴ 정현선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국어 교육적 수용은 ‘문화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 ‘성찰적 독자로서의 의미생산자 교육’, 그리고 ‘작가로서의 의미생산자 교육’의 네 가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디어를 통한 국어 교육이 기대하는 효과를 언어와 문화의 학습, 비판적 읽기 능력의 제고는 물론이고 미디어 제작 능력까지 확장하였다.⁵ 이것은 미디어 텍스트⁶를 이해하는 ‘읽기’와 제작하는 ‘쓰기’ 능력을 필수 항목으로 지목한 Buckingham, D.의 저서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어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 목적은 기존의 언어와 문화 지식의 획득을 뛰어넘어 학습자의 비판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은 한국어 교육까지 영역을 넓혀 왔다. 주로 인쇄물로 된 자료를 중심으로 언어나 문화, 문학 교육을 해왔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 산물을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주로 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신문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 연구가 최은규(2004), 고혜화(2009), 이찬희(2010), 임영(2012) 등이 있다. 최은규(2004)

and Programmes, p.13,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62/136246e.pdf>.

² Buckingham, D.(2004), 기선정·김아미 옮김, 『미디어 교육: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서울: jNbook, p.70.

³ 이철진(2015), 「국어과 매체 교수·학습 방안: 동영상 UCC 제작을 중심으로」, 한남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미현(2013), 「영화·드라마 단원 분석을 통한 수업 방안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희(2007), 「국어 교육에서의 미디어 교육 수용 방안 연구: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인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Vol.37, 국어교육학회, pp.137-158.

⁴ 윤여탁 외 3인(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⁵ 정현선(2004),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서울: 역락.

⁶ Buckingham, D.에 따르면 미디어 텍스트는 이미지와 동영상, 오디오, 그리고 문자 언어 등 여러 종류의 언어들의 결합이다. Buckingham, D., 앞의 책, p.18.

에서는 신문의 교육적 장점과 기사 선정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고혜화(2009)는 신문을 활용한 효과적인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찬희(2010)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신문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보조 자료로서의 신문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임영(2012)은 신문 기사를 활용한 읽기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어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처럼 위의 연구들은 모두 한국어 교육에서 인쇄 신문의 활용을 주목하고 있으나 인터넷 신문을 교육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인쇄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미디어 자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국어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 목적과 달리 교육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디어 자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언어 학습과 문화 이해를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또 다른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초급과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문화 배경이 다르고 광범위한 분야 전문 용어의 사용이 빈번한 신문을 읽히려면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높은 난이도로 오히려 학습자의 열정을 식힐 수도 있다. 한편 고급 언어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 능력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겸비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본 연구의 교육 대상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 한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흔히 ‘조중동’⁷ 이라고 일컫는 한국 삼대 신문사에서는 모두 중국어 인터넷 신문 서비스가 지원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의 신문 기사를 연구 대상으로 택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는 신문사의 총체적인 인지도이고, 둘째는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데의 적절성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일간지인 『조선일보』는 한국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을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는 1995년부터 인터넷 신문 ‘디지털조선일보(조선닷컴)’ 서비스를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한문판은 물론이고 영문판, 중문판, 일문판 인터넷 신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조선닷컴 중문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한문판에 게재된 여러 기사들 가운데 그날의 가장 중요하거나 중국인 독자의 관심을 끌 만한 기사가 중국어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⁷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를 가리킨다.

다른 두 신문사에 비해 『조선일보』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아일보』 중문판의 경우를 보면, 가끔 글자체가 깨지는 기술적 오류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런 온라인 서비스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또한 『동아일보』 중문판의 창설 취지가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있다기 보다는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어 번역문의 중국어 발음을 읽어 주는 음성 서비스 기능까지 제공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주로 해외에 한국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하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중문판에서는 중국어 번역문에 해당되는 한국어 기사 원문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기능이 제공되어 있기에 기사 상단(上端)에 있는 ‘查看韩文原文’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한국어 원문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거나 번역 수업의 사례 자료로 활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 준다. 이와 달리 『중앙일보』 중문판에서는 이와 같은 하이퍼링크 기능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상 두 가지 기준 외에도 번역사의 번역 수준에 따른 중국어 표현의 정확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각 신문사에서는 고정된 전문적 번역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사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번역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자가 설정한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조선일보』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⁸

본고의 제 1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인터넷 신문 교육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2 장에서는 기존 인쇄 신문에 비해 인터넷 신문이 지니는 특성과 교육적 가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 3 장 1 절에서는 인터넷 신문이 지니는 이러한 장점을 한국어 교육에 이입시켜 인터넷 신문을 활용한 수업 절차 모델을 고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수업 절차 모델을 실제 텍스트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설명하는 내용은 2 절에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4 장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II. 인터넷 신문의 특성과 교육적 가치

1. 인터넷 신문의 특성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병행하여 등장된 인터넷 신문은 사회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1980년대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신문 구독률의 저하와 이에 따른 발행부수의 감소, 그리고 뉴스 매체로서 주도적인 지위에 차지하게 된 TV

⁸ 물론 선택 기준의 설정에 따라 다른 신문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의 보급으로 인해 신문 기업들은 보다 많은 구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뉴미디어 사업 분야로 그 외적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기존의 인쇄 신문에 비하여 디지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신문은 인쇄와 신문 배포에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시간성,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성 등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인쇄 신문과 비교할 때 인터넷 신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인터넷 신문이 지니는 상호작용성이 두드러진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대상들간의 메시지의 송신과 수신을 의미하는데 ‘상호대화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⁹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 신문은 현실적이며 생동감 있는 소재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이 소재들에 대해서 상호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쇄 신문과 방송 매체와 달리, 인터넷 신문은 독자에게 정보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보 제공자와 독자 사이의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¹⁰ 그리고 정보 제공자와 독자 사이뿐만 아니라 독자들 간의 상호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다자간의 소통은 독자들의 능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을 접근하게 된다.

다음에는 하이퍼텍스트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즉, 특정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이 특정 하이퍼텍스트가 불러온 것은 문서일 수도 있고 그림이나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일 수도 있다.¹¹ 하이퍼텍스트는 기존 인쇄물의 선형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노드 단위의 구조로 연결되어 하나의 망 조직을 이루는 새로운 형식의 텍스트이다. 그러기에 일정한 선택 경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선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며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독자마다 읽어 나가는 경로가 달라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의 편리성을 들 수 있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최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검색 기능으로 독자는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문을 담는 공간이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주제와 관련 과거 기사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문이 지니는 기술적 특성은 문자, 그림, 동영상에 대해 편집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까지 가능하게 한

⁹ 정성학(2000), 「국내 종합일간지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의 저널리즘적 활용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경성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¹⁰ 최영·김병철(2000),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Vol.44 No.4, 한국언론학회, p.173.

¹¹ 오정훈(2011), 「하이퍼텍스트성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Vol.87, 한국국어교육학회, p.142.

다.¹² 이처럼 인터넷 신문의 손쉬운 접근성, 검색 기능의 효율성, 편집과 저장 기능의 높은 활용성은 독자에게 기존의 인쇄 신문으로 기대할 수 없는 편리성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기존 인쇄 신문과 비교할 때 인터넷 신문이 가지는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시간성과 경제성 외에도 정보 제공자와 독자, 독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성, 독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하이퍼텍스트성, 그리고 사용의 편리성이 그것이다. 이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신문이 기술 발달과 사회 발전의 시대적 추세이고 기존 인쇄 신문보다 여러 가지 뛰어난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특성들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도입시킬 때 어떤 면에서 우월성과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인터넷 신문의 교육적 가치

인터넷 신문의 특성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크게 다음 몇 가지의 측면에서 그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1). 통합적 언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신문의 특성은 읽기 중심이나, 인터넷 신문은 듣기, 말하기, 쓰기를 연계하는 통합적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문은 기사를 읽고 그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을 적어 두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타인이 남긴 메시지에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 교육은 교수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를 주도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여 댓글을 읽고 쓰는 등 활동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다.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신문사에서는 모두 이런 소통의 공간이 개설되어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한국어 기사 원문 끝에 독자들이 기사 내용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백자평’이 있는데 한국인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거기에다 반영하곤 한다. 학습자는 한국인의 댓글을 읽고 기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의 의견을 남김으로써 한국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사 댓글은 비록 실명제로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가상적인 공간에서 언어폭력과 같은 현상¹³을 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댓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때는 선택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교수와 학습자들만으로 구성되는 토론방이나 블로그 공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공간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을 한국어로 구사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¹² 계수미(2001), 「인터넷신문의 콘텐츠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닷컴, 디지털조선일보, 조인스닷컴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¹³ 욕설이나 인신공격 혹은 비방과 같은 메시지가 오가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댓글에 대한 다른 학습자의 추가 댓글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절히 밝히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¹⁴, 그리고 한국어 표현에 대한 교수의 평가 결과를 통한 쓰기 능력의 신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2). 다양한 학습 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편리성

신문 사용상의 편리성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 볼 때, 우선 가상공간의 무제한성으로 인해 인터넷 신문은 양적으로 보다 더 많은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용어를 배울 수 있어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매우 적합한 학습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보에 대한 편집과 저장 기능이 가능하기에 교수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 또한 자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집하고 메모를 남길 수 있으니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신문의 하이퍼텍스트성, 그리고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골라 볼 수 있어 교수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이룰 수 있다. 한국어 원문과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당되는 한국어 원문과 연결하는 하이퍼링크가 제공되어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원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번역실습과 같은 과목을 가르칠 때, 번역문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표현이 적당한지, 적당치 않으면 어떻게 다른 말로 바뀌서 표현해야 하는지를 교수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실습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인터넷 신문 사용상의 편리성은 한국어 교육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3).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비판적 읽기 능력의 향상

신문은 무한한 실제 자료의 원천이며 풍부한 정보원이다. 신문 텍스트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 사고 및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인터넷 신문은 현실적이며 생동감 있는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면서 한국 사회와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가져다 준다.

한편 같은 이슈를 두고 신문인, 또는 신문사에 따라 취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어느 한 편의 기사, 한 가지의 관점에 한정되지 않고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여러 기사, 여러 관점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기사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면서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학습자는 보다 객

¹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학습자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수가 인터넷 사용의 윤리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서유경(2009), 「매체언어교육의 실행 방안 연구」, 『국어교육』 No.128, 한국어교육학회, p.96 참조.

관적인 이해를 획득할 수 있고 비판적 읽기 능력을 향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사 내용과 관련된 ‘오피니언’을 찾아 읽히면 학습자로 하여금 배운 지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 획득의 차원을 넘어

학습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Ⅲ. 인터넷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 수업 절차 모델

1. 인터넷 신문 교육의 수업 절차 모델

앞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인터넷 신문의 교육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이처럼 인터넷 신문은 여러 가지 교육적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방안이 아직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터넷 신문 교육의 수업 진행 절차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읽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읽기 전 단계’, ‘읽기 단계’, 그리고 ‘읽기 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학습 단계	단계별 활동 항목
읽기 전 단계 (기사 헤드라인)	1) 기사의 주제를 제시하여 그것에 대하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게 한다. 2) 기사의 헤드라인(제목)이나 기사에 실린 그림을 살펴보고 읽을 내용에 대해 예상하게 한다. 3) 교수가 기사의 헤드라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읽기 단계 (기사 원문)	1) 훑어 읽기를 통해 원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앞의 단계에서 자신이 예상하는 내용과 맞는지 체크하게 한다. 2) 교수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생소한 어휘와 문법에 대해 설명한 다음 문장을 자세히 읽게 한다. 3)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4) 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로 구사하여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도록 한다. 5) 중국어 번역문을 제시함으로써 이해의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번역문이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하여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하게 한다. 6) 주제와 관련된 다른 기사나 오피니언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읽기 후 단계	1) 한국인 독자가 남긴 댓글을 선택적으로 읽고 토론하게 한다. 2) 교수가 댓글의 작성 방법과 인터넷 사용 예절을 가르친 뒤 학습자

¹⁵ 다만 ‘오피니언’은 언제나 글쓴이의 개인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비판적 관점을 가지도록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사 댓글)	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 댓글을 작성하게 한다. 3) 교수가 학습자의 댓글에 대해 추가 댓글 달기의 형식으로 피드백을 준다.
---------	---

<인터넷 신문 교육의 수업 절차 모델>

교수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정된 기사에 대한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교수가 기사문 주제와 관련된 질문 몇 가지를 던질 수 있다. 학습자로 그 질문에 대하여 각자가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기사의 헤드라인이나 기사에 실린 그림을 살펴보고 기사 내용을 추측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함축된 헤드라인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도록 교수가 헤드라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읽기 단계로 넘어오면 먼저 원문 훑어 읽기를 통해 학습자로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읽기 전 단계에서 자신이 예상한 내용과 맞는지 스스로 체크하게 한다. 교수는 학습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생소한 어휘와 문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사 원문을 자세히 읽게 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이처럼 통독(通讀)과 정독(精讀) 단계를 거치고 나면 학습자는 기사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이 될 것이다. 이때 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국어로 구사하여 다른 학습자와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말하기, 듣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교수가 중국어 번역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기사 원문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목표가 번역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 번역문이 원문 기사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지, 어휘와 문법의 사용에 있어서 정확한지, 보다 더욱 적절한 표현이 없는지 등 여러 가지 번역 능력을 제고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는 다른 기사문을 찾아 읽거나 주제와 관련된 오피니언을 찾아서 읽힐 수 있다.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다른 신문사의 기사문을 살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기사 끝에 실린 한국인 독자들이 남긴 댓글을 선택적으로 살펴보게 한다(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한 댓글은 피해야 함). 댓글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토론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교수가 댓글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댓글로 옮기게 한다. 추가 댓글 달기의 형식을 통해 학습자가 남의 댓글에 대해 코멘트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가 학습자의 한국어 표현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

2. 수업 절차 모델을 적용한 인터넷 신문 교육 방안에 대한 사례 분석

구체적인 기사 텍스트의 선정 기준 문제는 추후 과제로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단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교육 현상, 즉 교육과 관련 내용을 다루는 기사를 사례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한국어 기사 원문은 다음과 같다.

'등골탑' '엄마사정관계' 무슨 뜻? 자녀교육 고충 반영한 신조어

‘에듀푸어’ ‘엄마사정관계’ ‘등골탑’ … 교육과 관련된 신조어들이다.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모의 고충을 반영한 각종 신조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4일 영어전문기업 윤선생은 교육시장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를 모아 발표했다.

‘에듀푸어(Education Poor)’는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자녀 교육을 시키는 가구를 말한다. 집을 갖고 있지만 담보 대출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House Poor)’에서 유래됐다

교육 때문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등장한 게 ‘에듀테크(Education+ Technology)’다. 사교육비와 비싼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모들이 자녀가 아직 어릴 때부터 어린이 전용 적금과 펀드에 가입해 돈을 모으는 것이다.

또 과거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내던 시절에는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렀는데, 요즘엔 부모의 등골을 빼서 세운다는 뜻에서 ‘등골탑’이라고 부른다.

‘맘(엄마)시리즈’와 ‘아빠시리즈’도 유행이다.

당초 성적이 아닌 잠재력을 보고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입학사정관계는 ‘엄마사정관계’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엄마의 재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좌우된다는 얘기다.

또 ‘카페맘’ ‘아카데미맘’처럼 카페나 학원에 모여 정보를 주고받는 엄마들을 지칭하는 말도 있다. ‘타이거맘(tiger)’은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키는 엄마, ‘하키(hockey)맘’과 ‘사커(soccer)맘’은 아이스하키 경기장 또는 축구장까지 자녀를 따라다니며 뒷바라지 해주는 엄마를 일컫는다.

아빠시리즈엔 교육비를 책임져야 하는 아빠들의 경제적 부담을 반영한 말이 많다. 부인과 자녀를 유학보내고 명절이나 휴가 등 1년에 한 두 번만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기러기아빠’는 이미 ‘고전’이다. 등골이 휘도록 일해도 비행기 값이 없어 가족들을 만나러 가볼 수 없는 아빠는 ‘퐁퐁아빠’,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가족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바로 가볼 수 있는 아빠는 ‘독수리아빠’, 해외 유학을 보낼 형편이 안돼 강남에 소형 오피스텔을 얻어 아내와 자식만 강남으로 유학 보낸 아빠는 ‘참새아빠’다.

(출처: <http://news.chosun.com>)

인용한 기사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진 한국 현대 사회에서 자식 교육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학부모의 고충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다. ‘읽기 전 단계’에 앞서 교수가 우선적으로는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사례 기사와 같은 경우,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a. 기사를 읽고 교육과 관련된 신조어들을 이해한다.
- b. 자녀교육과 관련된 오피니언을 읽고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 c. 자녀교육과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익히고 자신의 의견을 한국어로 구사한다.

- f. 번역문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적절한 표현을 찾아낸다.
- d. 다른 나라(모국 포함)의 자녀교육 상황과 비교하여 이런 신조어들을 빚어내는 한국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 e. 댓글 작성 방법과 인터넷 사용 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댓글 쓰기의 형식으로 남과 소통한다.

이처럼 위에 제시된 학습 목표에 따라 신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교수가 먼저 교육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현대 한국 사회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 아세요? 관련된 글이나 신문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시작하여 학습자들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그 다음에 기사문의 헤드라인을 제시하여 읽게 될 내용을 예상하게 한다. 사례의 헤드라인은 “‘등골탑’ '엄마사정관제' 무슨 뜻? 자녀교육 고충 반영한 신조어”이다. ‘등골탑’ 과 '엄마사정관제', 두 개 신조어에 대한 의미 설명은 원문에 나와 있으니 미리 설명할 필요는 없다. 헤드라인에 들어간 ‘고충’ 이라는 어휘가 한자어이지만 한글로만 되어 있기에 학습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으니 교수가 ‘고충’ 의 한자 원형, ‘苦衷’ 을 제시해야 한다.

읽기 단계로 넘어오면 앞에 제시한 수업 절차에 따라 훑어 읽기와 자세히 읽기, 그리고 질의응답 활동을 실시하고 나서 학습자로 하여금 기사 내용에 대한 생각을 토론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해의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번역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자로 중국어 번역문과 대조 읽기를 한다. 예시 기사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子女教育不易 新造词反映父母苦衷

“教育奴”、“母亲状况管制”、“脊椎骨塔”……这些都是与教育相关的新造词。随着高考竞争日益激烈和对课外辅导的依赖度提高，反映父母苦衷的各种新造词接连出现。

本月4日，一家英语专门企业的尹老师收集并发表了在教育市场流行的新造词。“教育奴(Education Poor)”是指因重视学历的社会风气，即使借钱也要让子女接受教育的家庭。该新造词源于意为虽然有房子但因为贷款未能摆脱贫穷的“房奴(House Poor)”。

因教育问题经济状况逐渐恶化而出现的新造词是“Edutech”(education+technology)。为筹集课外辅导费和高额大学学费，父母从孩子小时候开始就通过儿童专用存款和购入基金等来攒钱。

此外，过去贫困农户家庭卖牛供孩子上大学时期，将大学称为“牛骨塔”。而最近称之为“脊椎骨塔”，意思是用父母的脊椎骨堆起来的。

“母亲系列”和“父亲系列”也非常流行。

当初实行“入学状况管制”是不看成绩而看潜力选拔新生，而现在出现了新造词“母亲状况管制”。就是说，母亲的财力和信息收集能力可以影响子女的未来。

另外，还有“咖啡厅母亲”、“补习班母亲”等新词称呼聚在咖啡厅或补习班交换信息的母亲们。

“虎妈”是指对子女进行严格教育的母亲。

“曲棍球妈”和“足球妈”是指甚至跟随子女到曲棍球场或足球场照顾他们的母亲。

在“父亲系列”中，很多都是反映承担子女教育费的父亲的经济负担的新造词。送妻子和子女去留学后，利用节日或休假等 1 年去看家人一两次“大雁爸爸”已成为过去。

即使拼命工作也因买不起机票去看家人的父亲被称为“企鹅爸爸”，经济富足想家人的时候可随时去看望的父亲被称为“鹰爸”，由于无法送子女到海外留学只能在江南租下小型公寓送妻子和子女到江南上学的父亲则被称为“麻雀爸爸”。

(출처: <http://cnnews.chosun.com>)

위에 제시된 번역문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자가 기사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번역 능력 신장을 위하여 번역문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사 첫 줄에 나오는 ‘엄마사정관계’는 ‘입학사정관계’라는 표현에서 유래되는데 이는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점수를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이 평가하고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¹⁶ 엄마의 재력과 정보력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엄마사정관계’라는 신조어가 나온 것이다. 여기서 ‘사정’이라는 한자어의 원형은 조사하거나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査定’인데 번역문에서는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뜻하는 ‘狀況(상황)’으로 잘못 번역되었다. 또한 ‘엄마시리즈’ 부분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斯巴达式教育’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번역문에서는 이 표현을 빼놓았기 때문에 원문 표현의 생동감이 약화된다.

외래어에 대한 번역도 문제 삼을 만하다. ‘에듀푸어’와 ‘하우스푸어’는 각각 해당되는 중국어 표현에 맞게 번역되어 있지만 ‘Edutech (education + technology)’에 대해서는 해당된 중국어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영어 표현만 그대로 나와 있다. 외래어에 대한 번역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여기서는 ‘Edutech’를 ‘教育技術’로 번역하되 뒤에 영문 표현을 괄호 속에 넣어 붙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휘에 대한 번역 문제 외에도 문장의 구성과 어순 등 문제점이 있다. 번역문에는 용장한 문장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很多都是反映承担子女教育费的父亲的经济负担的新造词”라는 문장에는 수식어가 너무 많은 나머지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지장이 되고 독자에게 용장하다는 느낌을 준다. 문장을 적당한 위치에서 끊어 줘야 보다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이처럼 기사 원문을 번역문과 대조하며 문제점을 발견하여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 훈련이 번역 능력을 키우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학습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기사 주제와 관련된 오피니언을 읽힐 수 있다.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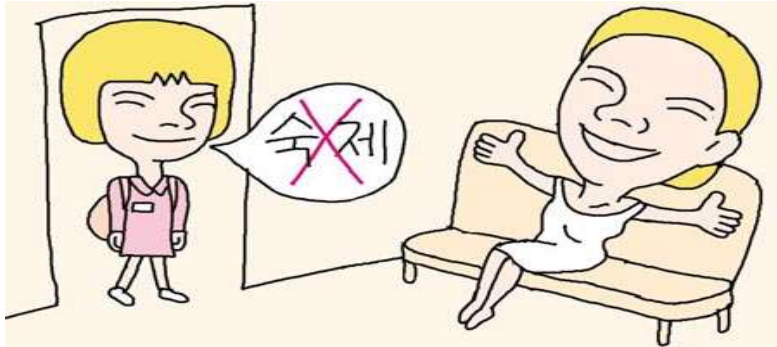
세계 엄마들 '행복 성적표'

너무 알았다. 한 번 해봤다고 망심했다. 8년 만에 다시 하는 초등학교 1학년 엄마 노릇, 만만한 게 아니었다. 알람장에 적힌 숙제는 왜 그리 많은지. 받아쓰

¹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기 연습, 수학 익힘책 풀이, 하루 한 권 책 읽고 독서록 쓰기까지. '요괴워치' 보겠다는 아이를 구슬려 숙제하다 보면 밤 9 시가 훌쩍 넘는다. 젓가락으로 콩 찹는 연습도 시켜야 한다. 1분 안에 서른여섯 알 이상 옮겨야 1급이다. 첫 수학 시험에서 75 점 받아온 딸아이를 보며 8년 전과 똑같은 고민을 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손자를 직접 키우는 할머니 한 분은 담임에게 불려갔다. 숙제고 준비물이고 제대로 해오는 게 없으니 신경 좀 쓰라고 했단다. 그 애길 들은 시어머니가 발끈했다. "엄마 없는 애는 학교도 다니지 말라는 거냐?" 한국에서 아이 숙제는 엄마 숙제다. 인터넷 없이는 하기 힘들고, 만들기 하나에도 점수를 매기니 아이 혼자 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아이 성적이엄마 성적인 탓이다.



▶스웨덴에서 1년간 살 때 '엄마 숙제'가 없어 행복했다. 준비물도 없었다. 아이들은 모든 걸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했다. 목공실에서 나무를 잘라 제 손으로 만든 고래 장난감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며 어찌나 자랑스러워하던지. 숙제가 없는 건 엄마들을 배려해서다. 성인 여성 9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나라다. 종일 일하고 돌아온 엄마에게 부담을 주어진 안 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래서일까. 국제 아동 구호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해마다 발표하는 '엄마 웰빙지수'에서 스웨덴을 비롯해 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1~5위를 휩쓸었다. 건강, 소득, 교육 기간, 공직 점용율에서 엄마 웰빙지수 30위인 한국을 큰 차이로 앞섰다. 엄마들 행복지수를 가른 건 일과 양육을 행복하게 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면서 아이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니 북유럽 엄마들은 행복하다.

▶한국 엄마의 웰빙지수가 낮은 건 제도 탓만도 아니다.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걸 못 보는 부모들 욕심도 불행의 씨앗이다. 스웨덴 유치원에서 아이들 기념촬영을 한 적이 있다. 공주 드레스를 입고 한껏 멋을 내고 간 건 우리 딸뿐이었다. 스웨덴 아이들은 평소 차림이었다. 머리에 그 흔한 왕관, 나비넥타이를 매고 온 아이는 없었다. 민망했다. 1등으로 돋보이는 아이가 아니라 남들과 어울려 조화롭게 자라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 행복, 웰빙의 비결은 거기 있지 않을까.

(출처: <http://news.chosun.com>)

윗 글은 또한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모들의 지나친 걱정과 자아 희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글쓴이는 현실에 대한 보도의 차원을 넘어 현상을 빚어내는 본질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뒤쳐지는 것을 못 보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마지막 단락에서 제시되어 있다. 사교육비의 증가로 부모들의 고충을 다루는 앞의 기사문과 상호텍스트적인 관점에서 이 글을 살펴보면 한국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부모의 자녀교육 고충은 불완전한 교육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부모 자신들이 가지는 잘못된 교육 태도에 원인이 있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스웨덴 부모들의 교육 태도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가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예컨대 여러분의 부모는 1 등을 추구하는 한국 엄마들의 태도와 같나요? 아니면 남들과 어울리는 인격 양성을 중요시하는 스웨덴 엄마들의 태도에 더 가깝나요? 이 두 가지 교육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교육 문제는 중국의 경우도 비슷한가요? 등과 같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모국 교육 현황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한국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단계에서는 댓글 읽기와 달기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기사 원문, “'등골탑' '엄마사정관제' 무슨 뜻? 자녀교육 고충 반영한 신조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댓글을 살펴본다.



이수현 (sh**)**

2012.12.04 16:26:08 신고 | 삭제

2012.12.04 16:26:08 신고 | 삭제

그렇게 고생하고 키운 자식들이 훗날 어떤 자세로 자기 부모들을 대접할까를 생각하면 유쾌하지 않다. 공빈 짓들 같아서다.

댓글쓰기 - 1 0



김주엽 (j2**)**

2012.12.04 15:09:49 신고 | 삭제

2012.12.04 15:09:49 신고 | 삭제

바보 아빠들, 뭐가 행복할 가정인지 모르는 바보 엄마들, 그 틈새에서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되어버리는 불쌍한 자식들. 우리들의 이지러진 자화상

댓글쓰기 - 2 0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 독자가 남긴 댓글에 대해서 교육할 때는 언어 폭력과 같은 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댓글에 ‘골빈 짓’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골이 비어서 하는 미련한 짓’의 뜻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일종의 속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수가 학습자에게 독자의 의견을 소개하거나 이런 줄임말 언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댓글 내용을 받아들이고 비판적 읽기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끔 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학습자가 부적절한 언어 환경에 폭로되지 않도록 학습자들과 교수만으로 구성되는 토론방이나 블로그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댓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댓글 달기 전에 교수가 댓글의 작성 방법과 준수해야 할 인터넷 예절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타인의 댓글에 추가 댓글을 작성할 때 우선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부터 가져야 하고 욕설이나 남을 비방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명

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댓글 작성하기 앞서 구성할 댓글의 목적을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¹⁷ 작성된 댓글에 교수가 추가 댓글의 형식으로 학습자의 언어 표현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다. 학습자가 피드백을 수용함으로써 쓰기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테크놀로지의 힘을 입어 국어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인터넷 신문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일환으로 기존 인쇄 매체에 비해 많은 디지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쇄 매체에 비해 인터넷 신문이 지니는 특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특성을 한국어 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인터넷 신문은 기존의 인쇄 신문보다 정보 제공자와 독자, 그리고 독자 사이의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 한국어 학습자는 기사 내용에 대한 다른 독자들이 남긴 댓글을 읽고 자기의 견해를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의 하이퍼텍스트 특성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탐색해 나갈 수 있게 되고, 모국어와 연결시키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함으로써 해당된 번역문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정보에 대한 저장과 편집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편리성을 제공한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관련 기사나 오피니언을 검색하여 읽음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비판적 읽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신문은 한국어 교육에서 새로운 형식의 텍스트를 제공해주었다. 인터넷 신문의 특성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신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업 절차 모델을 제시하고, 이런 수업 절차 모델에 따른 실제 신문 텍스트의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하지만 기사 텍스트의 선정 기준, 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유익한 교육 활동에 대한 검토까지 나아가지 못한 데서 그치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보완은 추후 과제로 하기로 한다.

¹⁷ 이호형(2010), 「인터넷 신문 읽기와 댓글 쓰기 교수-학습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Vol.4 No.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p.156.

참고문헌

- 계수미(2001), 「인터넷신문의 콘텐츠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닷컴, 디지털 조선일보, 조인스닷컴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화(2009), 「신문을 이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Vol.37, 국어교육학회, pp.137-158.
- 서유경(2009), 「매체언어교육의 실행 방안 연구」, 『국어교육』 No.128, 한국어교육학회, pp.73-101.
- 오정훈(2011), 「하이퍼텍스트성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Vol.87, 한국국어교육학회, pp.139-163.
- 윤여탁 외(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찬희(2010), 「신문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진(2015), 「국어과 매체 교수·학습 방안: 동영상 UCC 제작을 중심으로」, 한남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호형(2010), 「인터넷 신문 읽기와 댓글 쓰기 교수·학습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Vol.4 No.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pp.129-174.
- 임영(2012), 「신문기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현(2013), 「영화·드라마 단원 분석을 통한 수업 방안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학(2000), 「국내 종합일간지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의 저널리즘적 활용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정보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선(2004),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서울: 역락.
- 최영·김병철(2000),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Vol.44 No.4, 한국언론학회, pp.172-200.
- 최은규(2004), 「신문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1-233.
- Buckingham, D.(2004), 기선정·김아미 옮김, 『미디어 교육: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서울: jNbook.
- UNESCO Education Sector(2004), The Plurality of Lite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Programmes,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62/136246e.pdf>.
- 조선닷컴(한국어판): <http://news.chosun.com>.
- 조선닷컴(중국어판): <http://cnnews.chosun.com>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